

# 영광, 사회적 거리두기 군민참여 독려

### 유흥시설·생활체육 시설 등 운영 자제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내 제한적 허용

영광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달 5일까지 연장 결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의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 2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감염이 재확산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20일부터 16일간 연장 결정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함이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외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필수적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 시설, 학원, 종교시설은 기존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하되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

군은 지금까지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부는 물론 1:1 전담공무원이 매주 2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했고 영광5일장 이용자 발열 검사, 군 진입 주요도로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실시와 승강기 항균필름 부착 등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군민과 공직자

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키기 위해 군민, 공직자 모두가 함께 감염예방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구례 사성암, '더 킹' 나오는 절경 사찰

지난 17일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 (극본 김은숙, 연출 백상훈·정지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촬영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18일 방영된 '더 킹' 2회에서 이립(이정진)이 단장을 찰하는 사찰이 '구례 사성암'이라고 밝혔다.

기암절벽 위에 절묘하게 자리잡은 사성암은 경관이 뛰어나 명승 제111호로 지정된 곳이다. 사성암이 위치한 오산(鰲山)은 해발 530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지리산과 섬진강, 구례를 관망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다. 이 풍광을 보기 위해 매년 20만명의 관광객이 사성암을 찾는다.

누리꾼들은 "CG로 만든 것 같은 풍경이다. 한국에 있는 곳이라면 꼭 가보고 싶다"며 사성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성암은 드라마 '추노'와 '토지', 영화 '군도' 등의 촬영



지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10일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례의 명소들이 알려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방문을 자제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광양시 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공급

### 유치원·초·중·고교 2만4천여 명 가정 공급



광양시가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사업비 8억6천7백만 원을 투

입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정에는 '친환경 쌀'을,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4차례 개학이 연기되어 학부모들의 가정 돌봄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 농가 판로에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초·중·고등학교 총 51개교의 17,871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 쌀 10kg 1포대씩을 전달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6,355명의 가정에는 등원하고 있는 시설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자 1박스씩을 지원한다.

친환경쌀은 진상유기농쌀과 옥곡오감이통한쌀, 광양농협 친환경 쌀 작목반별로 생산된 유기농 쌀(17,871포/10kg)을 원협에서 직접 초·중·고교 학부모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방울토

마토와 참쌀, 애호박, 상추, 현미, 표고버섯, 파프리카, 브로콜리 8개 품목이 담겼으며, 원아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꾸러미 한 상자씩을 보호자가 수령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 학생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해주신 전라남도교육청에 감사사를 표하며, 이번 계기가 친환경 생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나주시, 빛가람 공원텃밭 개장



편 당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일회용 장갑 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초보 농부들의 원활한 텃밭 농사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작물 재배 교육 또한 텃밭 가이드북, 재배유인물로 대체했다.

시는 텃밭 분양자들에게 채소 모종(당초고추, 오이고추, 방울토마토, 상추)과 호미, 모종삽을 보급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난 텃밭 농부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반이 가려졌지만 가족과 행복을 가꿀 3평 텃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올해 빛가람 공원텃밭은 △제1 텃밭(빛가람동 536) 197구획, △제2 텃밭(빛가람동 831) 50구획 △제4 텃밭(빛가람동 22-1) 61구획 등 총 308구획 중 276구획이 분양됐다.

나머지 32개 구획(1텃밭)은 한전KDN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시험연구 텃밭으로 운영한다.

나주 혁신도시 공원텃밭 도시농부들이 지난 주말 첫 밭을 일경다.

나주시는 최근 텃밭 분양자, 가족, 텃밭 운영단체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 공원텃밭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텃밭에서 열린 이날 개장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3개 텃밭별 시간, 인원을 분배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시는 개장식에 앞서 텃밭 주 출입로, 도로변과 농기구 보관창고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

## 보성군, 비대면 온라인 농업인 교육 추진

보성군은 코로나-19 감염증 선제적 예방과 적기 영농 실적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 교육을 SNS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기초과정과 보성생명농업대학(키워반) 과정이 개설됐다.

비대면 온라인 농업인 교육은

최소 인원만 현장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전문강사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댓글창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물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 담양군, 2020 테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내달 15일까지

담양군이 군정 각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테마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군민과 공무원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혁신하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공무원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안 공모는 복지, 문화, 관광, 환경, 도시재생의 각 분야에서 담양의 맞춤형 주제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도록 했다.

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 우편, 읍·면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에서 6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빛가람**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